| 농림축산식품부 | 보 도 자 료 |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 |
|---|---|---|---|
| 보도 일시 | 2023. 3. 26.(일) 11:00<br>3. 27.(월) 조간 | 배포 일시 | 2023. 3. 24.(금) 16:00 |
| 담당 부서 | 유통소비정책관<br>유통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홍인기 (044-201-2211) |
| | | 담당자 | 사무관 정성수 (044-201-2223) |

# 거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중심의 산지 규모화 본격 추진

## -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구축 지원단 발족 -

### 주요 내용

□ 유통환경 변화(소량·다양화 선호, 온라인 거래 증가 등)와 대형유통업체·플랫폼 기업 지배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스마트화 추진

○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구축시 자동화로 생산성 제고, 취급 농산물 정보 데이터화 및 관리로 경영개선, 소포장·전처리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 기대

□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의 현장 수용성 제고, 관계 기관 역할 분담을 통한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구축지원단 운영

○ 품목별 주산지 거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중심으로 규모화, 온라인 도매시장 개설 등 주요 유통정책과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정책 연계 등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3월 24일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 지원단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는 농산물 선별, 포장 등 상품화와 수집, 저장, 출하 등 물류를 담당하는 복합시설로 산지 유통의 핵심 시설이다. 정부는 그간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을 통해 산지의 유통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해왔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유통과 소비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대형유통 업체와 플랫폼 기업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개인화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산지의 경우 디지털 기반이 취약하여 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1월 11일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2027년까지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100개소를 구축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농산물의 입고부터 출하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정보화하여 최소 시간과 비용으로 고객 맞춤형 상품을 생산하는 시스템을 갖춘 첨단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의미한다.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가 구축될 경우,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기능 자동화로 인한 생산성 제고, 취급 농산물 정보 데이터화 및 체계적 관리로 인한 경영개선, 소포장·전처리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 등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 정책의 현장 수용성을 제고하고, 관계 기관 간 역할을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 지원단을 운영한다.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 지원단은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을 단장으로 농식품부, 지자체, 농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촌진흥청 등 관계 기관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운영주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일 회의에서는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정부·지자체의 전략적인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향후 추진일정 등을 논의하였다.

농식품부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스마트화하여 산지의 시장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해당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거점으로 산지를 규모화하여 교섭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산지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온라인 도매시장 개설 등 주요 농산물 유통정책과 연계성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농협, 지자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관계 기관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 산지 규모화, 정책 연계와 관련하여 각각 역할을 부여하고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거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은 산지의 부가가치 창출과 교섭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온라인 도매시장과 연계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후생이 증가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